

설명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관악학생생활관
	881-9004, 9028

배포일: 2022.8.16.(화)

보도에 대한 설명 및 정정요청

○ 보도 기사

- “ ‘밤새 지하실 물 퍼냈어요’ 폭우 복구 노동자는 괴롭다”
(국민일보 2022. 8. 15. 00:03 온라인 기사 제목, 지면 8. 15. 10면)

○ 설명내용 및 정정 요청

폭우 당일 관악학생생활관 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참여·지휘하며 혼연일체로 밤새 폭우와 사투를 벌여 관악학생생활관의 정전 및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.

- “현장에는 양수기는커녕 이렇다 할 배수 도구도 없었다.”

☞ 침수가 있었던 기계실에서는 수중펌프 3대를 이용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수중펌프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도구(밀대, 빗자루등)을 이용한 복구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.

- “정신없이 작업을 하다가 물에 잠겨 있는 전기 설비가 눈에 들어와 (감전 위험

때문에) 아찔했다” , “학교 측에서 미리 ‘설비실은 들어가지 말라’ 고 안내를 하거나 현장에서 진입을 막았어야 했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다” 고 토로했다.

☞ 설비실내 작업은 시설직 담당자가 사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상황임